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14(土)	15(日)
구름 많음 19/30℃	구름 많음 19/28℃

News

- 전남 버스·택시요금 동결 ②
- 이달 하순부터 장마 시작 ③
- 오늘밤 월드컵 축구 예선 ⑧

Books

- '포복절도' 농담하는 카메라 ⑭

Entertainment



- 리얼리티 프로그램 인기 ⑧
- 스크린, 역사속 인물 묘사 ⑨

Wellbeing

- 식품 탐구 - 동굴레 ⑬



유망직업 전망 55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062-220-1111
 새롭고 밝은 미래
전남과학대학
 062-220-1111



76년 역사의 광주 대표적 문화사랑방인 삼복서점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이날 말 문을 닫는다. 13일 광주 시 동구 금남로 2가 무등빌딩 지하 삼복서점 매장은 고객들의 발길이 뜸해 썰렁하기만 하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삼복서점 본점

76년 역사 접고 끝내 문닫나

지난 76년 동안 광주지역 서점 문화를 이끌어온 토종서점인 삼복서점 본점(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무등빌딩)이 이달 말 문을 닫는다. 도심 공동화현상 심화, 인터넷 서점의 활인 공세 등에 따른 매출 감소로 경영난을 견디다 못해 폐업 결정에 이른 것이다. 오랜 세월 광주 충장로를 찾은 시민들의 약속 장소이자 문화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온 삼복서점은 이제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13일 삼복서점에 따르면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오는 30일 본점을 폐업하고 당분간 상무점, 운남점 등 본점 두 곳만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삼복서점은 고객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 '저자와의 만남', 매장에 원형탁자 설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인근에 대형서점이 들어서고 저가 활인 경쟁을 펼치는 인터넷 서점에 독자들이 몰리면서 하루 매출이 350만원 이하로 떨어지는 등 5년째 적자운영을 면치 못했다. 한 때 40명에 이르던 직원 수는 8명으로 줄었다. 창업자 김중기씨와 아들 김영

휘, 손자 김성규씨까지 3대가 운영을 하고 있는 삼복서점은 1910년 개업한 종로서적이 지난 2002년 문을 닫음에 따라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서점으로 남아왔다. 1932년 소규모 책방으로 광주에 문을 연 삼복서점은 1945년 중앙초등학교 인근의 일본인 서점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자리

를 잡기 시작했다. 지난 1980년 5·18광주민중항쟁 당시 정국이 불안해 잠시 문을 닫기도 했었지만 단속 경찰의 눈을 피해 사회과학 서적을 파는 등 광주 시민들과 역사를 함께 해왔다. 1990년대 들어서 삼복서점은 나라서적(1996년 폐업)과 함께 광주지역의 서점문화를 이끌어온 지극의 자리를 맡았다. 특히 1992년 지금의 자리인 무등빌딩 자리로 확장 이전하면서 제2의 창업을 선언했다. 당시 서점 매장은 991.7㎡

(300여평)의 대형규모로 33㎡(10평)안팎이었던 다른 서점들과 달리 차별화를 내세웠다. 또한 법률, 컴퓨터, 예술 등 각 부문별 책을 갖추며 전문서점으로 거듭났으며 하루 매출도 2천500만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지난 1996년 동종업계의 라이벌인 나라서적이 적자 운영에 시달리다 문을 닫은 후 삼복서점도 매출부진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삼복서점은 너저저 않은 상황 속에서도 2000년부터 국내외 인문·사회과학 발전을 위해 지역서점 최초로 연

구비도 지원했다. 이런 삼복서점의 뜻을 기려 (사)한국사회조사연구소는 해마다 그 해 가장 우수 논문 선정, '삼복학술상'을 수여하고 있다. 김성규 사장은 "3대째 이어온 기업이었지만 경영악화로 문을 닫게 돼 아쉽다"면서 "10년 넘게 일해온 직원들을 생각해사라도 빠른 시일 내에 다른 곳에 본점을 다시 오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도심 공동화·인터넷 서점 공세

경영난 가중... 이달말 폐업 결정

시민들 문화사랑방 상실 아쉬움

를 잡기 시작했다. 지난 1980년 5·18광주민중항쟁 당시 정국이 불안해 잠시 문을 닫기도 했었지만 단속 경찰의 눈을 피해 사회과학 서적을 파는 등 광주 시민들과 역사를 함께 해왔다. 1990년대 들어서 삼복서점은 나라서적(1996년 폐업)과 함께 광주지역의 서점문화를 이끌어온 지극의 자리를 맡았다. 특히 1992년 지금의 자리인 무등빌딩 자리로 확장 이전하면서 제2의 창업을 선언했다. 당시 서점 매장은 991.7㎡

최악의 물류대란 시작

비조합원도 파업 합류... 하루 1천200억 피해

전국운수산업노조 화물연대 광주·전남지부가 13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운송거부사태가 비조합원으로도 확산되는 등 물류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 강경대처' 방침에 대해 공권력 투입시 전체 조합원이 곧바로 총파업에 동참할 것이라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 광주·전남 산업계의 피해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이 파업에 들어간 13일 광주지부 조합원 400여명도 광주시 광산구 비아HC 입구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하남산단 9번로 인근 공원에서 무기한 노숙투쟁을 시작했다. 광주지부는 지난 10일 1차 회

소속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주요 공

장과 산업단지에는 물류수송 비상에 걸렸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하루 평균 수송물량인 1천500여대의 반출이 전면 중단됐다. 삼성전자 광주공장과 금호타이어 등은 수출창구인 광양항의 반출입이 막히면서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여수산단과 순천 하이스코 등도 운송물이 급감했다. 또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운송 중단의 여파로 향후 생산라인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7월 수출에도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국무역협회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하루 1천2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현정부 주요 정책 일괄 반대 투쟁"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를 이끌고 있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쇠고기 반대 투쟁 일련도에서 벗어나 현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일괄 반대 투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책회의는 13일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간 활동제안을 통해 "광우병이 중심 쟁점이지만 의료 및 공기업 민영화, 물 사유화, 교육, 대운하, 공영방송 사수 등 5대 의제를 결합해 촛불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한나라당을 포함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재협상 요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항의방문 등을 추진하겠다"며 "이명박 정부가 촛불 민심을 외면한다면 정권퇴진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로 조직을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책회의는 일괄 반대 투쟁을 홍보하기 위해 각 시민사회단체의 토론회 등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개인의 의견도 수렴할 방침이다.

이 단체 관계자는 "광우병 쟁점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대책회의 운영위원회 결정이다. 그동안 촛불시위 참가자들의 다양한 요구도 있었다"고 밝혔다. 대책회의는 아울러 이날 저녁 서울광장에서 고(故) 효순·미선양의 6주기 추모행사와 함께 열리는 촛불문화제를 시작으로 14일, 15일, 18일, 21일에 연달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집중 촛불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연합뉴스

'30개월미만 수출 증명' 요구

訪美 쇠고기대표단, 미측에 제안할 듯

현재 우리 정부 대표단이 한국으로의 30개월 쇠고기 수출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에 별도의 수출증명(EV)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했고, 양측이 이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측은 이미 합의된 새

수입위생조건과의 불일치 문제, 자율규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개입 문제 등 때문에 수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13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덕배 농식품부 차관 등 쇠고기 대표단은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한

국행 쇠고기 수출 작업장에 '30개월 미만'이라는 조건이 포함된, 강제성을 띤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은 미국 농무부가 각 나라와 맺은 수입위생 조건에 맞는 쇠고기를 수출하기 위해 작업장을 감독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한국 EV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된 쇠고기는 검역관의 확인이 수출검역증명서에 명시된다. /연합뉴스

한국유방건강재단
2008 핑크리본 사랑마라톤대회
 2008년 6월 15(일) 오후 8시30분 (오전 9시30분 출발)
 광주합동종합기장

주최: 한국유방건강재단
 후원: (주)아오제퍼시픽
 후원: 2008년 6월 15(일) 오후 8시30분 (오전 9시30분 출발)
 후원: 광주합동종합기장

1. 참가비: 50,000원 (수령금 포함)
 2. 참가비: 100,000원 (수령금 포함)
 3. 참가비: 200,000원 (수령금 포함)
 4. 참가비: 300,000원 (수령금 포함)
 5. 참가비: 400,000원 (수령금 포함)
 6. 참가비: 500,000원 (수령금 포함)
 7. 참가비: 600,000원 (수령금 포함)
 8. 참가비: 700,000원 (수령금 포함)
 9. 참가비: 800,000원 (수령금 포함)
 10. 참가비: 900,000원 (수령금 포함)

문의처: 한국유방건강재단 (062)220-1111
 홈페이지: www.kubg.or.kr